

“이산상봉, 금강산회담과 관계없이 조속 추진”

통일부 “별도 사안 분리 대응… 추석전 상봉은 어려워”

통일부는 추석(9·19)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관련, “북측과 협의가 되는 대로 금강산관광 재개회담과 관계없이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21일 자료를 통해 “금강산관광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9월 25일로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제의했고 이산가족 상봉은 그 이전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이산상봉을 금강산 회담 이전에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부대변인은 “추석 전후라고 해서 우리가 날짜를 (북측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9월 25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상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금강산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면서 “남북관계는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동시다발보다는 차근차근하게 푸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은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라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로 금강

산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을 설명하면서 “신변 안전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이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다른 당국자는 브리

핑 뒤 별도의 설명을 통해 “선후 개념은 아니며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라면서 “기계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안되면 금강산 회담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산가족 상봉 시기에 대한 설명이 통일부 내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에서 준비 상황을 볼때 추석 전에 (이산상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물에 잠긴 헤이룽장성

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중국 헤이룽장성 자인현의 상양구 마을이 20일(현지시간) 온통 물에 잠겨 있다.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 지역 국경을 이루는 헤이룽강(黑龍江)은 최근 쏟아진 폭우로 일부 구간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나 일대에 살고있던 주민 200

연합뉴스

민주 지방선거 경선, 당원 표심이 좌우할 듯

■ 광역단체장 당원 80%+여론조사 20%

■ 광역의원 여론조사 없이 당원 100%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는 당원들의 표심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자들 간의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원회(위원장 조정래 최고위원·이하 혁신위)는 지난 2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 안을 결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에는 여론조사 일부 포함하는 반면 광역의원 후보 경선에는 여론조사를 아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위는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의 경우 ‘대의원 30%+권리당원 40%+당원 10%+여론조사 20%’를 통

해 후보를 선출하고, 광역의원은 여론조사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대의원 30%+권리당원 70%’로만 선출키로 했다.

혁신위의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 추천안이 당의 공식 경선방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혁신위가 추천 안에서 민심보다 당원들의 표심에 비중을 크게 두면서 앞으로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혁신위의 안대로라면 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모집과정에서 각종 부작용 속출도 우려되고 있다.

혁신위원인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여론조사의 경우 조작 가능성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경선과정에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어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를 넣지 않기로 했지만,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에는 당원의중심으로 부족하고 민심도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여론조사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입쌀 3400t 식당서 국산 둔갑

김춘진 의원 밝혀

지난해 식당에서 국산으로 속여 판 수입쌀이 3400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으로 들어온 쌀 의무수입물량(MMA) 11만400t 가운데 3438t이 국산으로 둔갑해 전국 식당에서 팔렸다.

2011년 MMA 물량 10만4000t 가운데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 물

량은 1686t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9만8000t 중 22t이 국산으로 둔갑했다. 2009년과 2008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물량은 각각 1328과 941t에 달했다.

2008년과 2012년의 적발물량을 비교하면 4년간 2.65배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100㎡ 미만 소형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의무제가 적용돼 이 때부터 적발 건수와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도학숙 원장에 김완기씨 위촉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사장 김운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지사)는 상근 명예직인 남도학숙 제9대 원장에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완기(69)씨를 위촉했다.

곡성이 고향인 신임 김 원장은 광주교를 졸업하고 1966년 광산 서창면 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출발, 34년 만에 광주시 행정부시장(1급)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구례군수와 나주군수, 광주·전남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행정과장·공보관을 거쳐 중

양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오는 26일 강운태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취임식은 27일 남도학숙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정부 내달 25일 금강산회담 제안에 北 응할까

김정은 치적 ‘원산특구’와 맞물려 수용 가능성

박지원 “北, 정부 9·25안 수용해야”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다음달 25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다.

북한이 제의를 받아들이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수용하는 셈이 되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올해 들어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선제적으로

이달야 제안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금강산관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일 뿐 아니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요한 치적이 될 원산 관광특구 개발과도 직결돼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에 금강산관광 재개는 원산 특구 개발과 맞물려 있어 의미가 크다”며 “북한은 남한에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어떻게든 금

강산관광을 되살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선 점도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남한에 대해 꾸준히 ‘대화 공세’를 벌인 점도 정부의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점치게 하는 배경이다.

다만, 북한이 정부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지렛대로 쓰

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심할 가능성

성

있다.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9월 19일) 전후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다음달 25일 열면 북한은 양 사안을 연계하기 어려워진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선물’을 먼저 내놓고도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대가’를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0년에도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해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열었지만 북한은 남한의 소

연합뉴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증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인 앞에서 70m 변호시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인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간축하가 완료(간축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투신속 진랑길 행복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신기동(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 ▷광산구 신창동 생산복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귀농지,전원주택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펜션,관광농원등 다양도)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숟가락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 1899-3975 H.P 010-3598-7080